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충청남도지사 | 이완구



2009년도 기축(己丑)년 새해의 처음을 ‘열린 충남’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우리 도의 현안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조의 퇴조와 미국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 실물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국가 및 지방경제의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서해안유류유출사고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예산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외자·기업유치 및 도민1인당 GRDP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더욱 빛나는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제 개선 건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전국 확대 등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품격 문화 충남’과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목표로 열심히 일한 결과, ‘2010 충청권 방문의 해’ 유치, 백제역사재현단지 민간자본 투자 확정, 백제문화제와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 전국체전 12년 연속 상위권 입상 등 문화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적뿐만 아니라,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1위, 고령사회 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 수립 등 맞춤형 복지실현 중장기 계획 마련·시행,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등 복지·환경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명품충남의 완성을 목표로 가치가 살아있는 고품격 문화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특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2009회계연도 개시 전 934억 원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기업의 숨통을 터주었고,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 집행할 전체 예산인 8조 5천억 원 중 90%를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이 자금 중 60%를 같은 기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의 경제

여건만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외자유치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만 경제의 엔진이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도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유지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외계층이 많아지는 등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도는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정책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 고령층을 위해서 건강·소득·여가·주거 4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빈곤한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 방지 및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한 아동 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에 모두 2,0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환경개선, 직업재활, 고용 등 다차원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만 83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도정을 뒤흔들 수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도민과 도지사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그것이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한 지방의 균형발전이 진정한 발전임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앞바다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우리는 돌 하나, 바위 틈 사이 기름때까지 닦아내어 우리의 바다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는 한 우리에게 당면한 대·내외적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2009년 새해를 맞아 충남발전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도정의 번영과 200만 도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